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 문승우 후보 확정

총 40표 중 36표 얻어 당선
 제1부 의장에 이명연 후보
 제2부 의장 김희수 후보 선출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당선인들이 26일 선거가 끝난 뒤 도의회 앞에서 맞손을 잡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희수 제2부 의장 당선인, 문승우 의장 당선인, 이명연 제1부 의장 당선인)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문승우 의원(군산4·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이명연 의원(전주10·더불어민주당)과 김희수 의원(전주6·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임기는 7월 1일부터 2년이다.

문승우 당선인은 2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임시회' 의장단 선거에서 총 40표 중 36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됐다.

문 당선인은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자리에 앉은 만큼 전북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의회에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며,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도 의회가 성공적인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민과 의원들의 역량을 결집해 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 당선인은 제11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장과 윤리특별위원장을 지냈으며, 12대 도의회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날 의장단 선거에서 제1부 의장에는 이명연 의원(37표), 제2부 의장에는 김희수 의원(30표)이 각각 선출됐다.

제2부 의장 선거는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출마해 김희수 의원과의 대결로 치러져 이수진 의원이 8표를 득표하고, 김희수 의원이 30표를 득표해 당선됐으며, 기권 2표가 발생했다.

제1부 의장에 당선된 이명연 당선인은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만 바라보

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이를 위해 의회 내부적으로 견고한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대외적으로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스웨덴의 타계 엘렌데르 총리가 20년 간 집권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스웨덴의 정치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인 점을 본 받아 정치에 임하겠다."고 다짐하며, "늘 성당에 가서 새벽기도를 통해 전주님께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두배로 되돌려 갚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특별히 의원님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두배로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당선 기쁨의 마음을 의원들에게 돌리며 감사를 표했다.

이명연 당선인은 제7·8·9·10대 전주시의회 의원과 제9대 의장을 지냈으며, 제11대 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과 제12대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제2부 의장에 당선된 김희수 당선인은 "도민과의 소통은 물론 의회 내부,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 창구가 되겠다."며 "의원 간에 서로 화합하고 포용하면서 배려하는 상생의 의회를 만들고, 도민과 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조율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제11대 도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냈으며, 12대 도의회 특별자치도 특위위원장과 농산림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한편, 도의회는 27일에는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28일에는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날 도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가 끝난 뒤, 의장·부의장 당선인들은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전북 발전을 위한 일에 도의회가 가장 앞장서겠다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26일 전북특별자치도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수 임대형수직농장 운영 업무 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최훈식 장수군수,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이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장수군-CJ제일제당, 동부권 임대형 수직형 스마트팜

민관협력 상생모델 구축 '의기투합'

청년 스마트팜 육성 협약 체결
 수직농장 운영 지원 등 주 내용
 전북 동부권 인구 유입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최훈식 장수군수, CJ제일제당 임형찬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군이 조성하는 '동부권 임대형 수직형 스마트팜(이하 수직농장)'의 민관협력 상생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스마트팜 운영을 통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식품기업과 연계해 유통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상생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장수군에 조성되는 수직농장 입주 청년농 선발 및 교육, △청년농 대상 재배기술 전수 및 운영 노하우 협력 등의 수직농장 운영 지원, △수직농장에서 청년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구매 지원 등이다.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은 지난해 전북자치도가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동부권 6개 시·군 중 장수군이 선정됐으며, 올해 말까지 수직농장에 입주할 청년농 선발과 교육을 진행하고, 내년 초부터 수직농장이 정상 운영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동부권 시·군

이 농촌인구감소가 심각하고, 적은 농지규모로 온실형 스마트팜 조성이 어려워 청년농과 연계한 스마트팜 확산이 더디다는 한계점 해소에 주력해왔다.

도는 지난해 현장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동부권 지역적 특색과 청년농 육성을 토대로 한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을 결정하고, 입주한 청년농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전량 유통이 가능한 식품기업인 CJ제일제당 참여를 이끌어냈다.

신개념 스마트팜인 '수직농장'은 건물형태의 밀폐환경에서 인공광원·환경제어시스템 등을 활용해 작물생육을 최적 제어하는 다단계배양형태의 스마트팜으로, 지난해 한국의 수직농장 기술과 플랜트가 중동에 2억8,300만 달러(한화 3,942억원 규모)의 수출 실적을 나타내며, 신성장 수출 분야로 주목받고 있을 정도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올해 3월에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발표로 수직농장과 관련된 제도개선과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을 예고한 상태로 지난해부터 식품기업과의 연계한 수직농장 운영모델을 준비한 전북자치도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국에서 유례없는 스마트농산업을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며, "전북자치도가 스마트팜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해 대한민국 농

생명 산업수도의 꿈을 실현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3자 협약을 통해 관내 스마트팜 농산물의 생산·유통 체계가 탄탄하게 구축되고, 고부가가치 미래 농업을 통한 청년농과 귀농인구 유입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팜 모델 구축을 통해 다양한 작물 재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장수=고관호 기자

'이귀재 교수 위증교사' 수사골 검찰 "윗선연루 단서 없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재판에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26일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두차례 기각됐고 객관적인 물증과 여러 인적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윗선이 연루됐다는 단서나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며 "어떠한 범죄사실에 있어서 직접 범죄를 실행한 사람과 이를 지시한 사람, 그 지시를 또 지시한 사람을 밝혀내면 진술과 증거가 일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윗선 개입여부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증거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뉴시스

여름 전북서 많이 발생한 화재는 '차량·냉방기·배전반'

여름철 전북지역에서 차량, 냉방기, 배·분전반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전북지역의 화재 통계를 분석한 결과 다른 계절과 비교해 여름철인 7월~8월 사이 차량과 냉방기기, 배·분전반 화재가 잦았다.

5년간 차량화재는 1,354건 발생했다. 이 중 7월과 8월에 발생한 화재는 총 247건으로 18.2%를 차지했다.

특히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8월은 136건의 차량 화재가 가장 많았다. 여름철 주로 사용하게 되는 선풍기와 에어컨 등 냉방기기 화재 역시 여름철

에 집중됐다. 최근 5년동안 도내 냉방기 화재는 65건 중 7월과 8월 두달 동안 40건으로 61.5%를 차지했다.

배·분전반 화재 역시 전체 128건 중 여름철 발생 건수가 3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장마가 있는 여름철엔 빗물이 유입되면서 전류가 정상 경로로 흐르지 않으면서 스파크를 일으켜 화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뉴시스

